

권위를 갖고 지식의 공여자와 새로운 지식을 드러내라 , 그러면

계시의 복이 올릴 것이다 . ( 밥다다가 모임 안에 강림하심 . )

이것은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혀진 특별한 영혼들 모두의 집회다. 너희들 스스로도 왕관을 쓰고 옥좌 위에 앉혀졌다고 여기느냐? 너희들 모두 무한한 봉사에 대한 책임의 왕관을 쓰고 있지 않느냐? 무한한 왕관이란 무한한 기억의 화신으로서 부동해진다는 뜻이다. 너희는 각자 무한한 책임의 왕관을 쓰고 있다. 무한한 자녀들의 왕관에서 나오는 빛과 힘의 광선이 무한 속으로 퍼지고 있다. 너희는 이미 제한된 것들 밖으로 나와 무한한 황제들이 되었다. 너희는 제한된 그 어떤 것에 대한 의식도 이미 초월했으므로 너희의 몸과 일체의 모든 육신의 한계도 역시 벗어났다. 특별한 봉사는 모든 이를 유한한 데서 무한함 속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아버지 브라마가 아비약트가 된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를 한정된 것에서 꺼내어 무한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브라마에 대한 실질적 형태의 사랑은 아버지 브라마를 따르는 것이다. 아버지 브라마는 무한한 봉사의 장소, 서틀 리전에서 양팔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인 자녀들의 손을 잡으려고 그 특별한 팔들을 부르고 있다. 아버지 브라마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는, “자녀들아, 무한 속으로 들어오너라”라고 외쳐 부르고 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들 각자가 그와 같이 무한한 왕관을 쓴 이가 되어 희망이 없는 곳의 모든 영혼들이 희망의 빛줄기를 볼 수 있도록 계시의 빛과 힘을 온 사방에 퍼뜨려야 된다는 특별한 열의를 항상 지니고 있다. 모든 이의 손가락이 이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게 해라. 손가락으로 하늘 너머를 가리키면서 찾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구의 별들이 이 지상에서, 축복의 땅에서 드러났음을 경험하게 해라. 해, 달,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여기서 경험되게 해라. 과학을 토대로 과학자들이 은하계에 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도 지구의 살아있는 은하계를 경험하게 해라. 너희 모두 이 순수한 소망을 이뤄줄 도구 영혼들이다. 너희는 이미 그렇게 무한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계획은 너희의 역량에 따라 세워졌다. 현재의 때에 따라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들에게서 무슨 봉사를 원하겠느냐?

오늘 밥과 다다는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대화였겠느냐? 아버지는 “나의 고귀한 자녀들 모두,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찾은 자녀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특별한 자녀들, 변함없이 아버지의 동반자인 도구 자녀들 모두 봉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축복의 땅에 다 함께 모였다”라 했다.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가 만나서 세운 계획들은 아주 좋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된 유형의 봉사가 아직 남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참으로 큰 권위를 가진 이들이고, 지식의 권위, 요가의 힘의 권위, 고귀한 다르나의 화신으로서의 권위, 아버지의 직계 상속자로서의 권위, 세계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권위 등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그토록 많은 가짓수의 권위가 있다. 예컨대 경전들에 대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있고, 뭔가를 버리고 순수해진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권위가 한 가지뿐이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권위가 없으므로 비록 위대한 영혼이라도 그들은 신 아버지와 관계라는 면에서는 정확한 지식의 권위자가 아니다. 한 가지 권위만 가진 자들은 세상의 영혼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고, 거짓된 것을 진실이라고 증명해 보임으로써 전진해왔다. 그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권위를 과시해왔다. 참으로 대단한 도취감과 한정된 성취의 광채로 그들은 남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진 고귀한 영혼들은 뭘 해야겠느냐? 아직껏 남아있는 일이 뭔지 아느냐? 완성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1984년까지냐, 세기가 바뀔 때까지 (2000년)냐? 너희의 예상으로는 얼마나 더

오래일 것 같으냐? 2000년도에 너희가 완성되겠느냐, 그 전에 그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희가 이제껏 해놓은 준비에 따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해야 할 무엇이 아직도 남았느냐? 너희들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의 토대는 새로운 지식이다. 첫 번째의 칭송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지식의 대양, 이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칭송 중에서 첫 번째이자 으뜸인 새로운 지식을 세상에 이미 드러냈느냐?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전에는 지식의 공여자를 너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지식의 공여자가 높은 가운데 최고로 높다는 것과 오직 그만이 지식의 공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가 드러나는 것은 오직 이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뿐일 것이다. 영혼들이 말하는 것과 신이 이르는 것의 차이를 사람들이 지각으로 알기 전까지는, 그들이 지금껏 매달려있는 사소한 지원을 어떻게 손에서 내려놓고 한 분의 지원을 취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지금 현재 극히 작은 지원만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만사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여긴다. 지식을 통해서 지식의 공여자의 지원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제한된 굴레에서 해방될 수 없다. 이제껏 너희는 오직 땅을 준비하는 봉사와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봉사만 해왔다. 과제는 좋고 가족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이 미덕은 분위기를 바꾸는 도구가 된다. 토양은 준비되었고 계속 준비될 것이다. 그러나 기반, 새로움, 씨앗은 새로운 지식이다. 그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한다, 즉 영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랑과 더불어 영혼인 너희가 지식의 권위도 역시 가지는 것, 너희가 참된 지식의 권위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이것이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 이제까지 아무도 들려준 적이 없었던 것을 여기서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는 자들 모두가 느끼게 해라. 이 지식을 주는 너희가 그것의 권위자라는 말이 그들에게서 나오게 해라. 물론 너희가 지닌 순수성, 평화, 사랑, 청결이라는 기반이 있고, 이 기반을 토대로 땅이 변해왔다. 이것이 네 개의 기둥이다. 전에는 어느 누구의 지각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았던 반면, 지금은 이 기둥 넷을 토대로 그들의 지각이 이리로 이끌린다. 변화가 이만큼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주된 것의 소리, 즉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라는 소리가 어디에서나 들리게 해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해온 것이면 뭐든 전능한 권위자 BK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왔고, 또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해온 것이면 뭐든 너희는 “맞다”라고 얘기해왔다. 그러므로 그러한 “네”와 “아니오”는 낮과 밤만큼 차이가 난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위대한 영혼들이 증명할 것이다. 이제는 이 이름 (호칭)을 드러내라, 그러면 승리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 영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도 그들은 그래도 이 지식을 여전히 귀담아듣고 다른 데서 들은 것과 뒤섞으며,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이런 말을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계 전체가 한쪽에 있고, BK들은 반대쪽에 있다는 소리, 너희가 새로운 지식을 주는 권위자라는 소리가 들리게 해라. 이 권위가 아주 잘 알려지게 해라. 강력한 영혼들이 앞에 나와 너희를 대신해 복을 올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일 것이다. 너희는 복을 두드릴 필요가 없고, 이것이 뭔가 새로운 것임을 알게 된 그런 영혼들이 만족해서 새로운 열의를 갖고 복을 올릴 것이다. 종교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너희는 아직도 구루들의 자리를 흔들지 못했다. 지금 현재 가지들과 잔가지들은 모두 편안하게 제각기의 관심사에 몰두해 있다. 씨앗이 언제 드러나느냐? 씨앗이 언제 위로 솟아오르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크고 작은 모든 가지에 난 잎들이 완전히 다 마르고 오직 맨 가지들만 남으면 그때 씨앗이 드러난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웠느냐? 너희가 자기의 무대에 오를 때는 너희들 본래의 지식이 드러나야 한다. 만일 축복의 땅에 와서도 그들이 단지 “여기서의 평화는 아주 좋다, 이곳의 사랑은 아주 좋다”라는 말만하고 앞자락을 아주 조금만 채우고서 돌아간다면, 그 경우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특별히 뭘 가져간 것이냐? 새로운 지식은 세상에 또 역시 드러나야 한다. 이 새로운 지식의 권위를 통해서 전능한 권위자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공여자가 누구냐? 사랑과 평화를 받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고귀한 어떤 분이 너희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은 오직 소수뿐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이해하느냐?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곳곳에 퍼뜨려라. 이해하느냐? 설령 수백만 중에서 오직 소수만 나오더라도 영혼들이 나오게 하고, 신문에 BK들이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세상에 주었다는 기사가 실려서 그 소리가 퍼지게 해라. 너희가 주는 지식, 그 지식의 기반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 지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등, 이 모든 것이 신문에 실릴 때면 너희는 지식의 공여자를 드러내는 복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느냐? 그들이 지식에 영향을 받게 해라. 지식에 의해 영향 받는 것과 사랑에 영향 받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나? 너희는 브라민들의 두 가지 부류를 보았다. 너희는 브라민이 되었지만, 일부는 사랑을 토대로 그렇게 되었고, 다른 일부는 사랑과 지식, 양쪽 모두를 기반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 각 그룹의 단계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지식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자들은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계속 자유롭게 전진할 것이다. 단순히 사랑만을 기반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강력한 영혼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식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부와 멀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과 단지 가족들에 대한 사랑만 가진 자들 사이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 그저 브라민 생활이나 순수성을 좋아하는 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온 자들과 지식의 힘을 기반으로 여기에 온 자들은 참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지식의 도취감은 영적 도취감이며 그것은 너희가 어떠한 의존으로부터도 자유로이 지내게 해준다. 사실 사랑도 힘이긴 하지만, 사랑의 힘을 기반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뭔가 지원 없이는 계속할 수 없어서, 반드시 이런저런 지원을 필요로 한다. 지식의 힘을 가진 자들은 지식을 되새기는 힘도 역시 갖고 있다. 되새기는 힘을 더 많이 가질수록 너희는 자동적으로 집중력을 더 기를 것이고, 지각이 집중되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키울 것이다. 지식의 기반이 없는 곳에는 집중력이 없으므로 식별력과 판단력도 역시 약해질 것이다. 앗차.

밥다다는 모든 것을 다 듣는다. 그는 재미있어하고 또 너희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스스로를 희생하기도 한다. 자녀들의 용기를 볼 때면 그는 또 매우 기뻐한다. 아버지 브라마는 자녀들이 무한함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층 더 깊게 느낀다. 그는 자녀인 너희들을 기다리면서 밤낮으로 너희에게 봉사하느라 분주하다. 서틀 리전에는 낮도 밤도 없지만, 물질세계에는 낮과 밤이 있다. 그는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를 특별한 영혼, 완성된 영혼, 완전한 영혼, 대등한 영혼으로 보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브라마에게,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이른다. 그러나 브라마는 열의에 넘친다. 이런 이유로 그는 너희들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는데 자녀인 너희들이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와 대등해진다는 얘기였다. 너희는 초창기부터 브라마 바바의 물리적인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보았느냐? 그는 말할 때 언제나, “‘카브’ (언젠가)가 아닌, ‘아브’ (지금)”라 했다. 그에게는 “언제”라는 말을 듣는 산스카르도, 남들에게 그 말을 하는 산스카르도 없었다. 만일 자녀가 어떤 일을 1시간 후에 하겠다고 얘기했다면, 바바는 그가 1시간을 보내게 놔뒀겠느냐?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5분이나 1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 바바가 그들이 뒤쳐지게 허용하겠느냐? 기차는 멈출 테고 자녀는 역에 도착할 것이다. 움직이는 열차는 정지할 텐데, 자녀가 거기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를 실제로 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이 자아변화든, 세계 변화라는 관점에서든, 이제는 너희의 실제 삶 속에서 “카브”라는 말을 “아브” (지금)라는 말로 바꿔서 실행해라. 이것이 아버지 브라마가 항시 가진 열의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앗차.

**형제들 몇몇이 작별을 고하려고 밥다다에게 왔음 .**

너희는 사랑의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은 정직한 마음에 대해서 언제나 기뻐한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을 지속해온 영혼들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의 응답을 계속해서 준다. 아버지는 항상 너희 가슴속에 합쳐져 있고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주 잘 전진하고 있다. 너희들은 카르마 요기 영혼들이다. 카르마와 요가가

결합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며 아버지에게서 축복 받고 또 희열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고결한 영혼들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자녀가 승리의 염주에서 구슬이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희망을 항상 갖고 있다. 앗차.

**Blessing:** 나악한 생각들을 끝냄으로써 의존의 어떠한 굴레에서도 해방된 독립적인 영혼이 되어라.

의존의 굴레는 너희 마음속의 나악한 생각으로 형성된 거미줄이다. 거미줄은 의문의 형태로 생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 또는 “이것과 같을까?” 라는 의문이 떠오르면 그것이 거미줄이 된다. 하지만 합류시대 브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자애롭고 고귀하며 전체 모든 일 가운데서 최고일 것이다”라는 단 하나의 강력한 생각만 가진다. 강력한 이 생각으로 거미줄을 끝내라, 그러면 너희는 굴레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영혼이 될 것이다.

**Slogan:** 지식이 많으며 요기인 영혼의 실제 형태는 겸손함과 두려움을 모르는 모습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